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 방향과 과제 탐색*

고필재**·김용진***·권일남****

초 록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 활동의 방향과 그 과제를 탐색하여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한 10년 이상인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초점질문을 개발하고, 이 질문을 바탕으로 수련관, 문화의 집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제)에 대한 진술문을 산출·종합하는 한편, 연구 참여자에게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72개의 진술문이 생성되었으며, 이후 지침에 따라 최종 47개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다차원 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시각화하여 군집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47개의 진술문은 2개의 차원과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요인을 정리하고, 분류된 군집을 명명하여 결과에 제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5개의 군집은 '지도자 교육 및 정보공유', '혼합형 활동 여건 조성', '홍보방법의 다양화', '청소년 의견수렴 및 요구반영',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 변화'로 명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와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활동, 요인 탐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개념도 연구법

* 본 연구과정에서 고견을 공유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석사졸업, 제1저자, pjforum622@mju.ac.kr

***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자연) 강사, 공동저자, yongkim95@naver.com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교신저자, choungji@mju.ac.kr

I. 서론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후 바이러스 확인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지난 3월 11일(현지 시각) 감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20일 확인 사례가 보고된 이후 2월 24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위험성을 알렸다.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네 차례 연기(휴업 명령)하였으며, 등교 개학은 그보다 더 늦게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교육부, 2020).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가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방역 당국이 감염 확산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설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과 선제 대응을 요구받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과 같이 집단시설로 분류되어 별도로 대응지침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지는 한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진 및 시행에 동참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시설은 지역의 단계적 대응으로 시설의 운영(일부)제한에서 운영 중단까지의 모습으로 지역별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의 청소년 시설이 기존의 대면 중심의 활동을 제공하는데 제한됨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역과 시설 여건에 따라 대응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향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에 따르면, 유행성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학교 폐쇄와 같은 조치는 어린이의 (특히 취약계층) 피해가 크다고 보고하였으며(Viner et al., 2020), 국내도 우리나라 청소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힘든 점으로 관계 단절이 가장 힘들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방역 당국은 감염병의 전파특성을 반영하여 사람 간의 접촉 빈도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활동을 비대면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비대면 관련 논의는 이루어져 왔으나, 추진 동기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등 수용성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었다. 교육 분야로만 한정하여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그동안 교수-학습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제공하는 EBSi 플랫폼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체제(KOCW) 등과 같이 온라인으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음에도 이를 강의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생활방역의 실천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 대학 대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등 관련된 기술이나 문화의 수용성이 향상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강의를 지식 전달 중심인 교과 중심 교육과정ಿಗೆ 비대면 환경으로도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학교 수업이 디지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쌍방향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권오남, 2020), 소통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청소년 활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경험 중심형의 경우, 경험이나 실제적 과제를 주제로 선정하고, 학습자의 자발적 행동과 그 경험을 중시하기에 비대면 환경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청소년 주무 부처부터 일선 현장에 이르기까지 대응방안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에, 관련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혼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이에 기존의 공공영역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가능성(주경필, 2020)이 있기에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최근 청소년 복지 및 활동 정책의 공공성과 목적성을 유지하고, 정책 대상 중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재구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여러 기관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 코로나19의 상황과 그 이후에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응을 위한 기초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이를 달성하려는 연구 방법으로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통해 실질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요인은 무엇인가?
- 둘째, 청소년지도자가 인식하는 청소년 활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개념도는 어떠한가?
- 셋째, 개념도를 통해서 도출된 청소년 활동 과제의 차원, 군집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대상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제 요인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중 수련관, 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지도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마친 후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는 청소년전문가로,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 정책·사업 등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겪은 경험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이라 판단하였다.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중 그 범위와 성격을 고려하여 비숙박형(생활권) 수련시설만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중복 인원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이며, 각각의 연구 참여자의 구분과 선정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구분과 선정기준

		(N = 10)
구분	선정기준	인원(명)
초점질문 개발 과정 참여자 및 예비실험 참여자	청소년 수련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청소년지도사	3
아이디어 산출 및 진술문 생산 참여자	청소년 수련시설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청소년지도사	7
진술문 구조화 및 중요도 평정 참여자		
계		10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단계별로 초점질문 개발 및 예비실험 참여자, 아이디어 산출 및 진술문 생산 참여자 그리고 진술문 구조화 및 중요도 평정 참여자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초점질문 개발 과정에는 총 3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과정은 다음에 있을 아이디어 산출 및 진술문 생산 과정에 촉진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청소년 수련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여, 가장 적합한 질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아이디어 산출하게 될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7명으로 구

성하였으며, 성별은 남성 2명, 여성 5명이고 이들의 평균 경력은 7.3년이며, 평균 연령은 28세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위에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념도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제 요인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절차 요약(Kane & Trochim, 2007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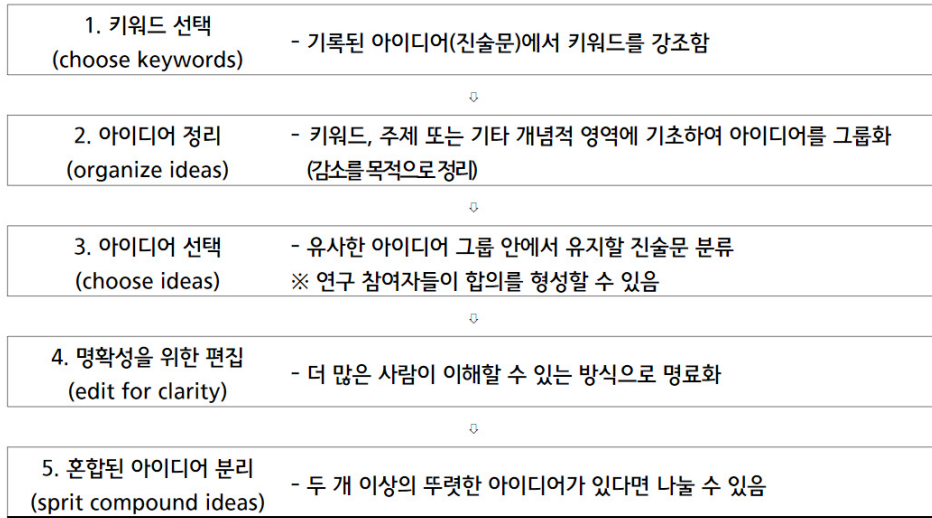
먼저 개념도를 위한 준비단계로 초점질문 개발 과정 참여자 3명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질문의 평가를 진행하였

다. 이 과정에서 예비실험을 통해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를 초점질문으로 선정하 되, 실질적인 진술문을 도출하기 위해 ‘코로나19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최종 초점질문으로 선정하였다. 질문 최종 선정과정에는 교육학 박사 1인과 석사 1인이 최종적으로 논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 및 진술문 생산 단계로 위의 단계에서 선정된 문장을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 및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진술문으로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Kane과 Trochim(2007)은 참여자의 수의 제한은 없으나, 아이디어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를 최소 8 - 10명 이상으로 권장하고, 현장 모임(on-site meeting)을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집단이 상호작용하며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면 기반 현장 모임의 어려움이 있어,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모임 형식을 채택하였다. 비대면 방식의 특징상 두 사람이 이상이 동시에 발언하거나 소음이 섞이면 청취의 어려움이 있어 참여 인원을 의도적으로 줄여 과정을 진행하였다. 해당 과정은 140분이 소요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된 최초 진술문은 총 72개이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아이디어 산출 및 진술문 생산과정에서 종합된 진술문을 개념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진술문을 도출 및 확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연구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디어 산출 및 진술문 생산과정이 마무리된 직후, 해당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와 합의에 따라 사전 분류(pre-classification)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술문 62개가 도출되었다.

한편, Kane과 Trochim(2007)은 많은 수의 진술문은 데이터 입력에 과도한 시간이 걸리기에 진술문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사전 분류된 진술문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 연구 단계에서 합의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진술문들은 교육학 박사 1인과 박사과정 1인이 참여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진술문 47개가 확정되었고, 이 진술문에 대하여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는 구조화 작업을 하는 한편, 진술문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2] 진술문 통합을 위한 지침 (Kane & Trochim, 2007)

분류작업은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 먼저,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군집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진술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사성이 없는 진술문을 모아서 기타 군집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분류된 진술문을 다른 군집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사항이다. 이 작업은 연구 참여자 7명 중 최종 6명이 응답하였으며, 개인당 평균 24분(11-40분)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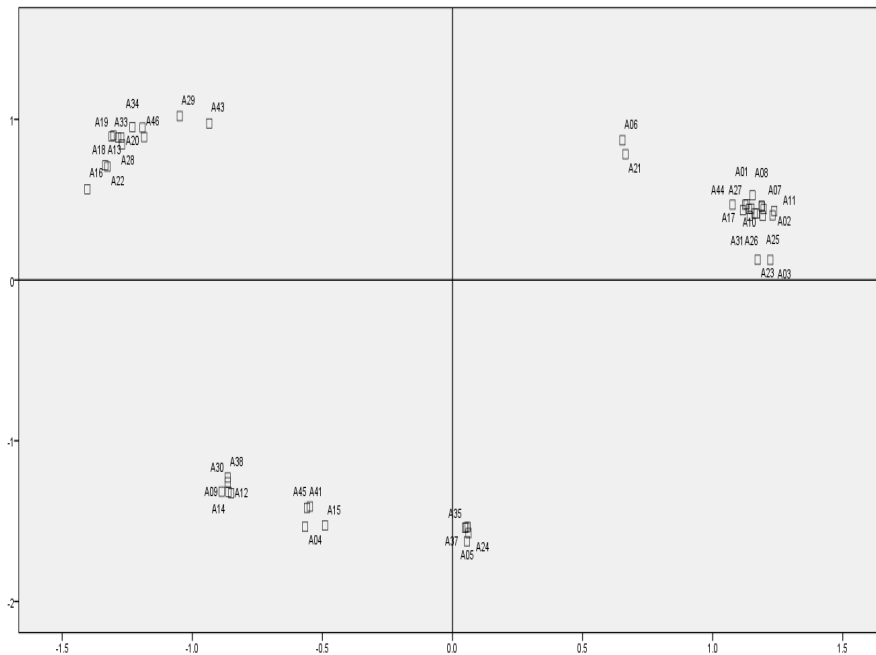
네 번째는 연구 참여자들의 구조화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요인에 대한 차원과 개념도, 군집 등을 도출하는 개념도 분석 단계이다. 이를 위해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계층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진술문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종 진술문을 제시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2점), 보통(3점), 중요함(4점), 가장 중요함(5점)’으로 Likert 방식으로 중요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다음 단계들은 개념도 해석과 활용의 단계로, 개념도 해석 단계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 및 해석 부분에 기재하고, 개념도 활용 단계는 결론에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방향·과제 요인 차원과 군집

본 연구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진술문은 47개로, 이 진술문에 대한 다차원 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차원의 수가 2개일 때 stress 값이 .264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근거로는 stress 값이 1차원에서 .516, 2차원에서 .264, 3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155, 4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121, 마지막으로 5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091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차원에서 합치도 값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252), 3차원 이후부터는 원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Kruskal(1964)이 스트레스 플롯의 경우 처음 크게 꺾이는 지점(elbow)의 차원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한 점과 Kane과 Trochim(2007)이 개념도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2차원을 권장한 점 모두를 만족시킨다.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를 설명하는 RSQ는 .741로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인다. 따라서 차원을 2차원으로 하고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포인트 지도로 시각화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포인트 지도)

[그림 3]에 표시된 점들을 살펴보면, 점 1개가 - 진술문 1개를 의미하며, 그 위치는 연구 참여자가 생각하는 인식의 유사성에 따라 표시되었다. 즉, 각 점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비슷하게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며, 반대의 경우는 다르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원(x축)의 정적 방향 극단에서부터 진술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2.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1.258).’, ‘11.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1.249).’, ‘3. 관계 형성 단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세부 과정이 필요하다(1.242).’ 순으로, 주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진술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차원(x축)의 부적 방향 극단에서부터 진술문을 살펴보면, ‘16. 비대면 환경에 맞는 활동(지도) 기법의 보완이 필요하다(-1.363).’, ‘13. 비대면 모델 확대를 위한 기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1.288).’, ‘22.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1.297).’ 순으로, 주로 기관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진술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1차원(x축) 양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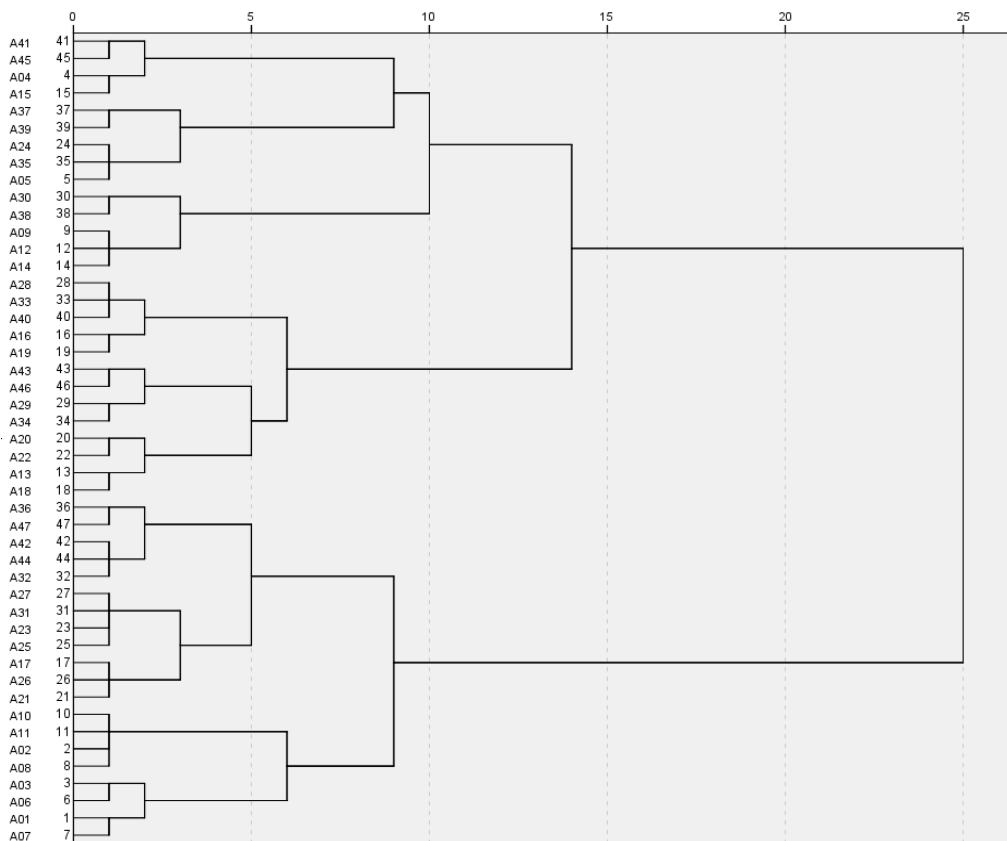
부적 방향(-)	정적 방향(+)
16. 비대면 환경에 맞는 활동(지도) 기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2.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3. 비대면 모델 확대를 위한 기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	11.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2.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3. 관계 형성 단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세부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2차원(y축)의 정적 방향 극단에서부터 진술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29. 연구기관과 현장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현장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1.085).’, ‘20.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1.025).’, ‘34. 지도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필요하다(1.024).’ 순으로, 주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진술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차원(x축)의 부적 방향 극단에서부터 진술문을 살펴보면, ‘5.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1.540).’, ‘24. 빅데이터 등을 통한 청소년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1.542).’, ‘15.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기관의 홍보를 진행한다(-1.540).’ 순으로 주로 프로그램 홍보, 의견수렴 등 실천적 요소가 요구되는 진술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차원(y축) 양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부적 방향(-)	정적 방향(+)
5.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29. 연구기관과 현장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현장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4. 빅데이터 등을 통한(검색량 유입) 청소년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20.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15.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기관(자치조직)홍보를 진행한다.	34. 지도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처럼 양극단에 있는 진술문을 살펴본바,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좌표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군집을 5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4] 참조).



[그림 4] 계층적 군집 분석(덴드로그램) 결과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분류된 5개의 군집에 대한 명명은 아이디어 산출 및 진술문 생산과정 직후 진행된 사전 분류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견해를 최소화하여 명명하였으며, 이 과정을 교육학 박사 1인, 박사과정 1인, 석사 1인이 함께 탐색하였다.

〈표 4〉 군집분석 결과 및 내용별 중요도

구분	내용	M	SD
군집 1	홍보 방법의 다양화	4.08	.98
41	특정 도구(카카오톡, 유튜브)에 매몰되지 않은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4.50	.54
45	홍보대상이 학교에서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로 변하고 있기에 홍보 방안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4.5	.54
4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구축한다.	3.83	1.47
15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기관(자치조직) 홍보를 진행한다.	3.50	1.37
군집 2	청소년 의견수렴 및 요구반영	4.69	.45
37	청소년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 제공이 필요하다.	4.83	.40
39	청소년이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33	.51
24	빅데이터 등을 통한(검색량 유입) 청소년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4.67	.52
35	온라인으로 청소년 활동 요구사항 파악이 필요하다.	4.83	.41
5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4.83	.41
군집 3	혼합형 활동 여건 조성	4.33	.72
30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4.16	.41
38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여건을 조성한다.	4.50	.55
9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4.00	1.55
12	새로운 모델 실험을 위한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다.	4.50	.55
14	비대면 콘텐츠 내실화를 위한 기자재의 확보가 필요하다.	4.50	.55
군집 4	지도자 교육 및 정보공유	4.52	.69
28	실무자의 영상/콘텐츠 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4.33	.52
33	지도자 대상 교육, 실습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83	.41
40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3.67	1.75
16	비대면 환경에 맞는 활동(지도) 기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4.50	.55
19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3.83	1.47
43	학교와 가능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4.83	.41
46	활동 정보나 결과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83	.41
29	연구기관과 현장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현장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83	.41
34	지도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필요하다.	5.00	.00

구분	내용	M	SD
20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4.67	.52
22	비대면(온라인) 활동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4.33	1.21
13	비대면 모델 확대를 위한 기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	4.67	.82
18	비대면 활동 운영체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지도자가 연구해야 한다.	4.50	.55
군집 5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변화	4.21	.84
36	청소년에게 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50	1.64
47	힐링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 활동에 대한 피로도 해소를 도와준다.	4.33	.52
42	프로그램 인원수 조정을 통해 소규모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	4.17	1.17
44	혼합형/블렌디드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4.5	.58
32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4.67	.52
27	시설 특성에 맞는 비대면 활동 요인의 발굴이 필요하다.	4.17	1.17
31	외부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3.67	1.37
23	비대면으로 라포형성을 가능하게 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17	1.60
25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5	.55
17	비대면 활동 모델로 전환하되, 대면과의 혼합된 활동을 해야 한다.	3.67	1.21
26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33	.52
21	비대면 활동의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83	1.47
10	매일 온라인으로 교육 듣고 활동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4.33	.82
11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4.17	.41
2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4.17	.41
8	단순한 키트 제공의 수준을 넘어 다각화된 관점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50	.55
3	관계 형성 단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세부 과정이 필요하다.	4.67	.52
6	다 회기 비대면 활동을 추진한다.	4.17	.75
1	QR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33	.52
7	단순 참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33	.52

본 연구의 군집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 1에서 높은 평정도를 보이는 진술문은 ‘41. 특정도구(카카오톡, 유튜브)에 매몰되지 않은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M=4.50, SD=.54).’, ‘45. 홍보대상이 학교에서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로 변하고 있기에 홍보방안의 다각화가 필요하다(M=4.50, SD= .54).’라는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지도자가 기관이 그

동안 해오던 홍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에 대한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기관이 할 수 있는 홍보의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군집 2에는 '37. 청소년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 제공이 필요하다(M=4.83, SD=.40)', '35. 온라인으로 청소년 활동 요구사항 파악이 필요하다(M=4.83, SD=.41).', '5.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M=4.83, SD=.41).' 등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활동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강조하는 용어가 모든 진술문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군집 3에는 '38.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여건을 조성한다(M=4.50 SD=.55).', '12. 새로운 모델 실험을 위한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다(M=4.50, SD=.55).', '14. 비대면 콘텐츠 내실화를 위한 기자재의 확보가 필요하다(M=4.50, SD=.55).'의 진술문이 가장 높은 평정 값을 보인다. 이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한계 또는 즉각적인 기자재 투입의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군집에는 대면 활동을 요구하는 진술문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비대면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활동이 가능할 시 단계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넷째, 군집 4에는 '33. 지도자 대상 교육, 실습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M=4.83, SD=.41).', '43. 학교와 가능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M=4.83, SD=.41).', '46. 활동정보나 결과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M=4.83, SD=.41).' 등의 진술문이 가장 높은 평정 값을 보이고 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면 실무자(지도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진술문과, 기관별 협력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 대한 공유 및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할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 5에는 '32.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M=4.67, SD=.52)', '3. 관계 형성 단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세부 과정이 필요하다(M=4.67, SD=.52).'는 진술문이 가장 높은 평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 군집에서는 프

IV.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 활동의 방향과 과제 요인을 탐색하여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의 발전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중 수련관, 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개념도 연구법을 통해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절차는 과제 요인을 추출하는데 적합한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청소년지도사를 선정하여 초점질문을 개발 및 예비실험을 진행하였고, 개발된 질문을 토대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형태로 진술문을 생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전 분류(pre-classification) 작업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침에 따라 사전 분류된 진술문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도출된 진술문을 다차원 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군집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인트 지도(point map), 군집 지도(cluster map) 등으로 시각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요인을 탐색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과제 요인을 구성하는 진술문은 최초 72개, 진술문 구조화 과정을 통해 최종 진술문으로 47개가 확정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과제 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문 생산 연구 참여자가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는 구조화 작업을 시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차원 척도분석을 시행한 결과, 2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stress 값이 .267이며, 합치도 값이 가장 크게 줄어든 점(.252) 등에 근거하여 차원 수는 2차원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생산된 좌표값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 분석을 활용하여 진술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한 결과, 5개 군집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군집에 속한 진술문을 각각 선으로 연결하여 군집 지도를 제시하였다(그림 3) 참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5개의 군집은 '지도자 교육 및 정보공유', '혼합형 활동 여건 조성', '홍보방법의 다양화', '청소년 의견수렴 및 요구 반영',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변화'로 명명하였다.

2. 논의 및 결론

앞서 제시한 차원 및 군집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5개 영역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군집 1의 경우, 그전에도 청소년 기관의 부족한 점이라 말하던 청소년 활동에 대한 홍보의 문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 크게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면 활동이 가능한 시기의 청소년 활동의 홍보는 기관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만이 활동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청소년 활동의 홍보 방법에 관한 새로운 접근 없이는 활동 밖에 있는 청소년의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청소년지도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적인 면을 확인하지 못했고 원론적인 진술문만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군집 2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비대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이를 변화 시키기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활동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비대면 활동을 청소년지도자부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프로그램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의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요구반영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 요구의 즉각적 대응을 위해 앞에서 이야기한 실무자들의 토의 기구 등을 활용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군집 3의 경우, 대면 / 비대면 유형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활동 시설은 대면/시설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무조건 비대면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 대면 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군집 4의 경우, 코로나19의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지도자 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대처하려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장비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도자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설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을 넘어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기구나 협력체계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도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의 활성을 통해 기관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기관에 직접 그리고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 5의 경우, 다양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청소년 활동이라 말할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양적 판단의 지표였던 인원수에 대한 조정이나, 무조건적인 대면 활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델 도입(혼합형, 블렌디드 등), 온라인 시대에 디지털 기기에 매몰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 청소년을 넘어 가족 및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 단기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장기 프로그램의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 단계 넘어선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새로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 활동 현장의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역과 시설 여건에 따라 대응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인 요인 발굴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본 연구가 코로나19 상황과 그 이후에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활동 현장에서의 대응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법을 채택하여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의 요구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점은 설문조사나 질적 연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현장 중심 청소년 활동의 요구조사에 혁신적인 연구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대상자(참여자)가 언급한 자유로운 진술문을 생산 과정과 분류 과정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최대한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내용과 관련된 요인 추출의 다양성을 보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다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느낀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상 숙박형(자연권)과 비숙박형(생활권)의 구분이 명확한데 본 연구는 비숙박형(생활권)에만 대상을 한정하였기에 청소년 활동 현장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면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연구 절차에 따라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양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작업이 수반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필재(2020). 개념도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요인 탐색 연구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오남(2020. 10. 7.) 기초가 탄탄한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향. 과학기술인재 육성방안 온라인포럼 시리즈(3) - 미래세대 기초·핵심역량 제고방안. [온라인 포럼 주제 발표자료]. <https://eiec.kdi.re.kr/publish/archView.do?seq=190&pp=15&pg=1>
- 노형진(2007). SPSS에 의한 다변량 데이터의 통계분석. 서울: 도서출판 효산
- 민경화, 최윤정(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박상희, 홍성두(2008). 특수교육연구에 있어 개념도 연구법의 적용가능성 탐색. 특수아동교육연구, 10(4), 231-245.
- 주경필(2020. 5. 29.) 코로나19가 바꾼 청소년활동의 변화와 대응방안. 2020년 전라남도 청소년 정책 토론회. [온라인 토론회 주제발표자료]. <https://youtu.be/E8dcaTfGGyQ>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총5권).
- 교육부 보도자료(2020. 3. 17.).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2.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2020. 2. 24.).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2.24),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0(2). 부산:한국청소년상

담복지개발원

- 대전센터TV(2020. 8. 18.). 2020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 포럼 - 포스트 코로나시대 청소년 활동의 변화와 대응. [비디오 파일(온라인)]. <https://youtu.be/1F8M3G9o1K8>
- 재단법인고양시청소년재단(2020. 6. 30.) 포스트(post) 코로나 청소년활동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망. 고양시청소년재단 온라인 포럼(2차). [비디오 파일(스트리밍 자료)]. <https://youtu.be/5JHYDQ2AIes>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20. 10. 7.). 급변하는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방안 온라인포럼 시리즈(3) - 미래세대 기초·핵심역량 제고 방안. [비디오 파일(스트리밍 자료)]. https://youtu.be/XjEnXjm_4ts
-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10. 21.)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비디오 파일(스트리밍 자료)]. <https://youtu.be/58ucZNFRUa4>
- Kane, M. & Trochim, W. M. K.(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 Sage Publications.
- Kruskal, J. 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 1-27;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A numerical method. 29, 115-129.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Trochim, W. M. K., & Cabrera ,D. (2005). The complexity of concept mapping for policy analysis. *Emergence: Complexity and Organization*, 7(1), 11-22.
- Viner, R. M., Russell, S. J., Croker, H., Packer, J., Ward, J., Stansfield, C.& Booy, R. (2020). School closure and management practices during coronavirus outbreaks including COVID-19 : a rapid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

Abstract

A Study on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Youth Activities in the COVID-19*

KO Pil-jae**·KIM Yong-jin***·KWON Il-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youth activities and their challenges in the context of continuing coronavirus Disease-19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VID-19)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in which Youth activities should move. Conceptual schematics were used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o this end, the focus questions was developed for youth worker who worked at youth activity(service) facilities for more than 10 years, and based on this question, statements on the direction (tasks) that youth activities should move forward were calculated and summarized for youth worker with more than 3 years of working experience. As a result, 72 statements were generated and the final 47 statements were deriv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equent guidance. These collected data are visualized by performing multi-dimensional scale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o derive cluster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47 statem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dimensions and five clusters. Subsequently, the presented data were compiled to summarize the direction and task factors for youth activities in the Corona 19 situation, and to name the classified clusters and present them in the results. To take a closer look at this, the five clusters were named 'Worker(Leader) Edu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 We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ose who shared their thoughts during this research.
**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First Author
*** Instructor, Department of Youth Studies, Myongji University ICE
****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houngji@mju.ac.kr

'Creating Mixed Activity Conditions', 'Diversifying Promotion Methods', 'Advising Youth Opinion and Needs', and based on this, they proposed the direction of discussion and follow-up research.

Keywords : Youth Activities, Examining Factors, COVID-19, Concept Mapping(Method)

투고일 : 2020. 12. 15. 심사일 : 2020. 12. 24. 게재확정일 : 2020. 12. 28.